

광동진씨의 황조별묘 고유제 연구

- 조종암 대통묘 제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승현*

단샤오홍(段曉紅)**

-
- I. 서론
 - II. 조종암 대통묘 제향의 역사과정
 - III.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과정
 - IV. 황조별묘 고유제의 동력
 - V. 결론
-

■ 국문초록

皇朝別廟는 17세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조마을에 정착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 제독 陳璘의 후손이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설한 사우로서, 皇朝別廟 告由祭라 명명된 해당 제사활동은 167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조별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明代遺民 가문이라는 제사 주체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廣

*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chx5278@jnu.ac.kr

** 廣西民族大學 民族學與社會學學院 民族學系 副教授
85jingwei@163.com

東陳氏의 황조별묘와 九義士 가문의 朝宗巖 大統廟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적 특징 및 그 현재적 의의를 초보적으로 고찰하였다.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1831년 시작하여 1934년 중지되었다가 1958년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제사의 형식과 취지, 심지어 제사 주체의 변화과정은 해당 제사가 이미 특정 가문의 제사라기보다는 한국의 전통제례를 보여주는 의례적 문화 행사로 변모하였음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드러나는 황조별묘 고유제의 가장 큰 특징은 1672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역사적 지속성이다. 황조별묘 고유제의 지속성을 담보한 요인은 陳璘을 대상으로 삼은 전형적인 조상의례의 형식아래, 한반도의 끝이라는 해남 황조마을의 지리적 폐쇄성, 350년간 황조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황조별묘의 상징성, 이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확보된 광동진씨 가문의 경제력 등이었다.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派譜였던 광동진씨가 중국의 大譜와 연결되면서 새롭게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황조별묘 고유제가 기왕의 정치단위나 경제단위의 한중교류와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혈연 관계에 근거한 씨족단위의 한중연대를 촉발시킬 현실적 매개체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명대유민, 광동진씨, 황조별묘 고유제, 구의사, 조종암대통묘 제향

■ Abstract

A study of Hwangjobyeolmyo-ritual: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ojongamDaetongmyo-ritual

Choi Seunghyun

(Chonnam Univ., Korea)

Duan Xiaohong

(Guangxi Minzu Univ., China)

HwangJoByeolMyo is a shrine built by a descendant of Admiral JinLin (陳璘) of the Navy to hold a memorial service for his ancestors during the ImJin War, which settled in HwangJo Village in the 17th century, the ritual activity began in 1672 a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In the absence of an academic approach to this ritual, this study examined i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ignificance.

This ritual which began as a memorial service for one JinLin, was a typical ancestral ritual to achieve the purpose of admiration for ancestors and share descendants's blessings.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this ritual only relied on the conditions within the clan, the emotional bond inside the GuangDongJin Clan, and the economic basis to support stable rituals. The geographical closure of HwangJo Village, which is at the end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end, the symbolism of HwangJoByeolMyo overlooking HwangJo Village for 350 years, and their

economic power secured independently in this space provided not only the emotional bond inside the GuangDongJin Clan, but also the mater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HwangJoByeolMyo-ritual could operate independently.

Key-Words : Migrants from Ming, GuangDongJin Clan, HwangJoByeolMyo-ritual, Nine righteous Literati Family, ChaoZongYan DaTongMyo-ritual

I. 서론

皇朝別廟는 17세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조마을에 정착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 제독 陳璘의 후손이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설한 사우로서, 皇朝別廟 告由祭라 명명된 해당 제사활동은 167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350년에 이르고 있다.¹⁾

17세기 明清교체라는 중국의 변화는 당시 조선 사회 전반에 특수한 이념세계를 만들어내었는데, 본 연구는 明 황제를 비롯한 明 관료 및 장군 등에 대한 제사를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주목한다. 유교사회에서 제사란 정통의 계승을 의미한다. 이에 조선의 유림과 왕실은 각기 萬東廟와 大報壇을 세워 이들에 대한 제사를 모시면서 中華의 정통을 조선이 이어받고 있다는 상징으로써 활용하였다. 1703년 시작된 萬東廟 제사는 노론의 영수였던 宋時烈의 유지에 따라 임진왜란 당시 지원군을 파병했던 明 神宗과 明의 마지막 황제인 毅宗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어 확대, 취소, 복원, 폐지, 비밀봉향을 거쳐 1942년 건물 자체가 철거되면서 그 명맥이 완전히 끊겼다.²⁾ 1704년 시작된 大報壇 제사는 肅宗의 발의로 明 神宗을 모시기 위해 시작되어 英祖 대에는 明 太祖와 毅宗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純祖 대에는 徐達, 李如松, 范景文이 明의 세 황제 아래에 종향되었다. 이 제사는 왕실의 주관으로 성대히 받들어지다가 1908년 칙령으로 폐지, 1921년에 이르러 제단자체가 완전 철거되었다.³⁾

1) 황조별묘 고유제에 관한 각종의 기록은 최초 제사가 이루어진 연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廣東陳氏派譜는 1672년, 안내판과 蒙恩錄은 1679년, 大明遺民史는 1680년이라 설명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아래, 본 연구는 해당 제사 당사자의 기록인 廣東陳氏派譜의 “1672년”을 따른다.

2)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조선후기 明 神宗을 위해 세운 사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만동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568>(검색일: 2024.6.5).

유림 및 왕실의 주관으로 모셔졌던 위 제사와는 달리 淸의 지배를 피해 조선으로 망명했던 이른바 明代遺民의 후손이 주관하는 제사는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九義士 가문의 연합제사인 朝宗巖 大統廟 祭享과 廣東陳氏 가문의 황조별묘 고유제이다. 九義士란 淸에 볼모로 끌려갔던 鳳林大君이 1645년 귀환할 당시, 그를 따라 조선에 망명한 반청인사 王美承, 馮三仕, 黃功, 鄭先甲, 楊福吉, 裴三生, 王文祥, 王以文, 柳溪山을 가리킨다.⁴⁾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조종암 대통묘의 제향은 九義士의 후손에 의해 1831년 시작하여 1934년 중지되었다가 1958년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明 太祖와 九義士를 모시기 위해 시작된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1958년 이후 그 대상을 무단히 확대하여 현재는 明의 神宗과 毅宗뿐 아니라 조선의 文武九賢까지 망라하고 있다. 文武九賢이란 金尙憲, 金應河, 洪翼漢, 林慶業, 李浣, 尹集, 吳達濟, 李恒老, 柳麟錫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尊華攘夷에 근거한 崇明排淸 및 衛正斥邪의 이념을 실천한 인물이다.⁵⁾ 이에 비해 1672년 시작된 황조별묘 고유제는 지금까지 350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황조별묘의 중앙에는 광동진씨의 시조인 陳璘이, 왼쪽에는 陳璘의 손자로서 조선에 망명한 陳永濬가,⁶⁾ 그리고 오른쪽에는 陳永濬의 아들로서 황조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 있었던 조선후기 임진왜란 당시 원병을 보낸 明 神宗 관련 제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대보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410>(검색일: 2024.6.5).

4) 유요문. 2023, “九義士傳’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법과 그 의미”, 고전과해석 40집, pp. 235-236.

5)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조선시대 崇明排淸 사상 관련 사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조종암 대통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612>(검색일: 2024.6.5).

6) 東渡한 진영소에 대해 廣東陳氏族譜(2002) 및 皇明都督陳公行蹟(1739)은 陳泳濬라, 그리고 廣東陳氏派譜(1906)는 陳永濬라 표기하고 있다. 본 문은 廣東陳氏派

을에 뿌리를 내린 陳碩文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황조별묘 고유제이다. 조종암 대통묘 제향에 관해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한중 양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⁷⁾ 황조별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전무하다. 물론 공간 규모, 의례 형식, 문화 재적 가치, 학술적 관심 등을 지표로 삼아 따져보면, 황조별묘는 조종암 대통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황조별묘의 역사성이 학계 바깥으로부터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사뭇 흥미롭다. 2014년 7월 4일 중국 習近平 국가주석이 “明나라 장군 陳璘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를 재차 소환하면서 매체의 주목을 끌었다. 陳璘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곳은 바로 황조별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광동진씨의 집성촌, 즉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의 황조마을을 가리킨다.

황조별묘를 매개로 삼은 양국의 민간 교류는 1993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중국 매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국 광동진씨 종친회 대표가 陳璘의 고향인 중국 廣東省 翁源縣을 방문했고, 이어 중국의 진씨 종친 대표단이 황조마을을 답방했다. 이로써 시작된 양국의 민간 교류는 해남과 중국 翁源縣 사이의 산업,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조종암 대통묘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는 황조별묘의 현재성이다.

본 연구는 明代遺民 가문이라는 제사 주체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광동진씨 가문의 황조별묘와 九義士 가문의 조종암 대통묘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적 특징

譜(1906)를 기준으로 삼아 陳永濤로 통일 표기한다.

7)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서민, 2022, “명유민의 제사활동 연구-조종암대통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및 그 현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廣東陳氏派譜, 廣東陳氏族譜, 황조별묘 상량문을 비롯하여 광동진씨 및 황조별묘를 언급하고 있는 각종 문헌자료, 관련 신문 기사와 소개문, 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뷰 등 사회학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그 부족을 보완하였다. 인터뷰는 2024년 2월 21일 황조마을 현지에서 陳順泰(15世孫)와 陳熙宗(15世孫)을 대상으로, 그리고 4월 6일 陳判奎(16世孫)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廣東陳氏族譜, 광동진씨문중 일정표, 황조별묘고유제 축문(2023), 고유제 관련 사진자료는 陳熙宗으로부터, 그리고 廣東陳氏派譜와 황조별묘 관련 사진 등은 陳判奎로부터 제공받았다. 황조별묘 고유제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접근인 본 연구는 황조별묘 자체에 대한 후속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이민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황조마을 노인회 陳順泰 회장, 황조마을 陳判奎 대표, 광동진씨 종친회 陳熙宗 총무께 지면을 빌어 큰 감사를 드린다.

II. 조종암 대통묘 제향의 역사과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종암 대통묘에 대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조선시대 崇明排淸 사상 관련 사당”이라 정의하고 있다.⁸⁾

仁祖實錄은 1644년 “明 毅宗과 황후가 모두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놀라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전한다.⁹⁾ 이렇듯 침울한 사회 분위기아래 大明處士 혹은 崇明處士라 자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조종암 대통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612>(검색일: 2024.6.5).

처하며 天子를 알현할 곳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許格이 경기도 가평에서 S자형으로 여러 번 굽이쳐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하천을 발견, 이를 宣祖가 남긴 “萬折必東”, 즉 “물결이 만 번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듯 천자를 향한 제후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상징물로 해석하고, 오랑캐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¹⁰⁾ 許格은 1684년 당시 가평 군수 李齊杜와 유생 白海明을 설득하여 明 毅宗의 어필인 “思無邪”¹¹⁾, 宣祖의 어필인 “再造藩邦 萬折必東”,¹²⁾ 孝宗의 批辭를 宋時烈이 쓴 “至痛在心 日暮途遠”¹³⁾, 宣祖의 손자인 朗善君의 친필인 “朝宗岳”¹⁴⁾ 등 22자를 바위에 새기고, 毅宗에 분항하면서 통곡하였다.¹⁵⁾ 이로써 이곳은 제후가 천자를 알현한다는 의미의 朝宗川과 朝宗巖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던바,¹⁶⁾ 이는 조종암이 許格을 비롯한 지역유림에

9) 仁祖實錄 22年5月7日甲午: 崇禎皇帝及后俱自縊. …, 雖輿臺下賤, 莫不驚駭隕淚.

10) 다음을 참조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24. “許格.”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6JOc_A9999_1_0019384 (검색일: 2024.6.5); 디지털가평문화대전. 2024. “승명배청의 상징을 간직한 조종암과 대통묘.” <https://www.grandculture.net/gapyeong/toc/GC07901623>(검색일: 2024.6.5); “鄉士白海明相謂曰, 此天下乾淨地也. 明社已墟, 吾屬寓慕無所”, 重菴先生文集 卷之五十二, 朝宗巖三賢傳.

11) “사악함이 없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 출전은 論語 爲政篇의 “子曰詩三百一言而蔽之曰思無邪”이다.

12) “조선을 구해준 은혜, 明을 향한 조선의 절개”를 의미한다. 그 출전은 荀子 宥坐篇의 “化其萬折也必東似志”이다.

13)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단행하고자 하나 여건이 여의치 못함을 통탄하는 말이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 2024. “조종암.”

<https://gjiicp.ggcf.kr/mediaObjects/35>(검색일: 2024.6.5).

14) “모든 강물(제후)이 바다(천자)로 모인다”를 의미한다. 그 출전은 書經 禹貢篇의 “江漢朝宗于海”이다.

15) 英祖實錄11年3月27日丁酉: 求得神宗皇帝御筆萬折必東四字, 模刻於加平朝宗巖, 每年三月十九日, 焚香哭毅宗皇帝.

의해 조성된 이념적 자기위안의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1831년 九義士 王以文의 후손 王德一, 王德九 형제가 조종암에 이주하여 明 太祖와 九義士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시작하더니, 뒤이어 역시 九義士 후손인 鄭錫一, 馮載修, 黃載謙 등이 제사에 합류하였다.¹⁷⁾ 과거 王德九가 유림이 관장하던 만동묘를 참배하였을 뿐 아니라 王氏 형제의 이주가 조종암이 “깨끗한 곳”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하면, 九義士 후손의 조종암 정착 및 제사활동의 배경에 유림과의 교감이 있었음은 분명하다.¹⁸⁾ 조종암에 九義士 후손이 정착하여 明 太祖에 대한 제사가 모셔짐으로써 당초 지역유림의 자기위안 공간이던 조종암은 明의 정통혈맥에 의해 大統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념적 상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1831년부터 시작된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明 건국일인 음력 1월 4일 明 太祖를, 그리고 이를 뒤인 1월 6일 九義士를 모셨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사 대상과 날짜, 심지어 제사주체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881년의 제사 대상에 王德一과 王德九가 추가되었다가, 1958년에는 이 둘의 신위 대신 神宗과 毅宗의 신위가 등장하였다. 1980년에는 宋時烈을 포함한 조선의 文武十賢이 추가되었는데, 훗날 宋時烈 후손의 반대가 있어 1984년부터는 그의 신위가 철향되었다. 당초 1월 4일과 1월 6일이던 제사 날짜는 1958년에 1월 4일로 합쳐졌다가, 1980년에는 3월 19일,

16) 디지털가평문화대전. 2024. “승명배청의 상징을 간직한 조종암과 대통묘.” <https://www.grandculture.net/gapyeong/toc/GC07901623>(검색일: 2024.6.5).

17) 朝宗巖保存會. 1982, 朝宗巖文獻錄, 서울: 景文社, pp. 534, 584; 朝宗巖保存會. 1987, 朝宗巖文獻錄後集 서울: 保景文化社, pp. 895-904.

18) 朝宗巖保存會. 1982, 朝宗巖文獻錄, 서울: 景文社, p. 581; 이와 관련하여 오영섭은 조종암 대통묘 제향을 “尊周思明”의 현상을 넘어 제사 자체가 “衛正斥邪”를 지지하는 華西學派 유생들에게 현실적인 정치적 가치와 하나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오영섭. 1995, “衛正斥邪의 象徵物 朝宗巖”, 泰東古典研究 11輯, p.99.

1986년에는 3월 셋째 일요일, 1990년에는 3월 19일로 변경되었고, 九義士 후손 단독이었던 제사의 주체는 1958년 조종암재건기성회로, 1979년에는 다시 조종암보존회로 변화하였다. 조종암재건기성회나 조종암보존회는 九義士 후손보다는 주로 가평군의 공무원 및 지역유림으로 편성되었다.¹⁹⁾ 제사 운영의 핵심이라 할 만한 대상과 날짜, 그리고 주체가 모두 변화한 것이다.

조종암 대통묘란 大統行廟와 九義行祠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써 본 연구는 大統, 行廟, 行祠라는 이름과 사용된 연호에 주목한다. 우선 1831년 王德一이 쓴 제문은 大統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春秋에서 大一統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 오직 우리 大明太祖 高皇帝께서 中國을 크게 정하였는데, …, 崇禎시기 천하의 난리로 인해 오랑캐가 들어와 中國이 머리카락을 밀었지만, …, 先王의 문화가 오직 조선에 남았으니, …, 조선의 백성이 일어나 그 마음을 돌에 새겨 春秋一脈이 이에 깃들어 있다고 하고, 또 華人이 있는 곳이라 하고, 또 小中華라 칭하니, 이곳이 이를 증명”한다면서 大統의 맥이 조종암 대통묘에 이어져 있음을 강조하였다.²⁰⁾ 여기서 行廟와 行祠의 의미가 파악된다. 이는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임시거소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곧 언젠가 중국과 大統이 이어질 때 九義士의 후손이 大統行廟와 九義行祠를 받들어 중국으로 귀환하겠다는 암시이다.

더불어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일관되게 南明의 永曆연호(1647~1683)를

19) 김서민. 2022, “명유민의 제사활동 연구-조종암 대통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02.

20) “春秋之義, 莫有重於大一統, …, 惟我大明太祖高皇帝, 大定中國, …, 至于崇禎, 天方艱難, 夷虜入關, 華夏髡首, …, 先王文物, 惟存於海外青丘, …, 東國士民之起, 感於名磨厓伐石, 曰春秋一脈寄在天地間, 云而則華人之所, 稱小中華者, 於斯徵矣”, 朝宗巖保存會. 1987, 朝宗巖文獻錄後集, 서울: 保景文化社, pp. 802-803.

사용하고 있다. 이는 明의 大統이 1644년 崇禎帝 毅宗의 자살과 관계없이 여전히 南明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²¹⁾ 이에 1875년 柳重教는 朝宗巖誌 跋文에서 “高皇一位에게만 제사지내는 것은 明나라의 大統이 일어난 근본을 통해 그 존귀함을 보인 것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준 은혜로써 神宗에게 제사지내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永曆연호의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제사대상과 사용연호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은 곧 조종암 대통묘 제향이 “우리나라”의 제사가 아닌 “皇朝舊民” 즉 明나라 옛 백성들의 제사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다.²²⁾

조종암 대통묘 제향이 “明나라 옛 백성들”의 제사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문의 이념적 단합과 함께 이를 지탱할 독립적인 경제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은 九義士 후손 연합의 조종암 대통묘 운영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878년에 이르러 이 제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제사 자체가 “결국 없어질 것이 분명한” 위기에 놓이자, 柳重植이 祭田을 구입할 자금을 모아 해당 제사를 보존하자는 취지의 통문을 지역유림에게 돌리기도 하였다.²³⁾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전의 일부가 다시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1887년 유생들이 또 자금을 모아 제전을 회수코자 노력했지만 그 위기는 끝까지 해소되지 못했다.²⁴⁾ 1934년 중지된 제사는 1958

21) 王德九는 “遺臣 萬世必報의 義”가 年號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다면서 永曆연호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余景燮, 2018, “朝鮮朝后期濟南王氏家族의 皇朝遺民意識”, 東疆學刊 35卷, p. 197.

22) 朝宗巖保存會, 1987, 朝宗巖文獻錄後集, 서울: 保景文化社, p. 845-846.

23) “朝宗皇壇助財通文: 家貧無尺寸, …, 無一人出力幫助者, …, 終見其廢墜”, 朝宗巖保存會, 1982, 朝宗巖文獻錄, 서울: 景文社, p. 370.

24) 朝宗巖保存會, 1982, 朝宗巖文獻錄, 서울: 景文社, p. 371.

년 재개되었지만, 그 성격은 이미 당초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김서민의 연구는 조종암 대통묘 제향이 씨족제사를 넘어 공공 지향적 제사로 전환되었다는 평가하지만,²⁵⁾ 당초의 제사가 과연 씨족제사의 범주에 속하는지, 더불어 현재의 제사를 공공 지향형 제사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속의 대한민국과 중국 두 나라가 겪은 동병상련의 감회를 전통제례문화로 이어가고자” 한다는 가평문화원의 제향 취지 설명은 주의를 끈다.²⁶⁾ 물론 조종암 대통묘 제향을 “중국”과의 “동병상련”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당초 제향의 崇明排淸 이념과 모순되지만, 앞서 살핀 제향의 대상, 목적, 주체, 날짜 등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가평문화원이 언급하고 있는 “전통제례문화”라는 평가는 타당하다.

III.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과정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황조별묘는 丁酉再亂 당시 명나라 수군 제독 陳璘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서, 그 후손인 광동진씨의 주관아래 1672년부터 매년 한식에 제사가 모셔지고 있다. 특히하게 황조별묘를 비롯해 황조마을 대부분의 가옥들은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陳璘의 고향 중국 廣東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디지털해남문화대전은 황조별묘의 역사에 대해 명나라의 멸망이후 陳璘의 손자 陳永濬가 조선에 망명하여 완도 고금도를 거쳐 해남 海里로 이주하였다가, 그 아들 陳碩文에 이르러 다시 현재

25) 김서민. 2022, “명유민의 제사활동 연구-조종암 대통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19.

26) 가평문화원. 2016. “조종암대통묘제향 의식 개최.” http://www.gpc.or.kr/bbs/board.php?bo_table=saup1_58wr_id=2(검색일: 2024.6.5).

마을로 이주하여 정착, 해당 지역을 皇朝洞이라 명명하고 陳璘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陳璘에 대한 최초 제사의 시기에 대해 디지털해남문화대전은 “변천”항목에서는 1679년으로, “현황”항목에서는 1680년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황조별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조건에서 본 연구는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陳璘 후손의 조선 정착과정, 최초 제사의 시기 및 형식, 황조별묘 건립 연대 등에 관한 관련기록의 차이를 정리하고,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廣東陳氏派譜(1906)와 皇明都督陳公行蹟(1739)은 監國守衛使를 수행하던 陳永濬가 명나라 멸망 이후 陳璘의 유혼 및 淸과 함께 살수 없다는 “不共戴天”의 마음으로 東渡하여 남해와 강진을 거쳐 해남에 정착하여 “華夏禮節”을 지키며 “河淸之日”을 기다렸다고 전한다.²⁷⁾ 그런데 陳永濬의 망명시기에 대해 廣東陳氏派譜(1906)와 皇明都督陳公行蹟(1739)은 1639년을 언급하고 있지만,²⁸⁾ 황조별묘의 안내판은 1644년이라 명시하고 있다. 황조마을에 정착한 당사자에 대해서 안내판과 蒙恩錄(1819)은 陳永濬의 아들 碩權과 允權을 언급하고 있지만,²⁹⁾ 정착 廣東陳氏派譜와 廣東陳氏族譜에는 陳碩文만이 등장한다. 陳永濬가 강진에 머무를 당시의 지명에 대해 廣東陳氏派譜와 廣東陳氏族譜는 九石里라 하지만³⁰⁾ 蒙恩錄은 龜石里라 하고,³¹⁾ 陳碩文이 해남 산이면에 정착할 당시

27) 廣東陳氏派譜. 1906; 皇明都督陳公行蹟(173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375.

28) “己卯仲秋”, 廣東陳氏派譜. 1906; “崇禎己卯後仲秋”, 皇明都督陳公行蹟(173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 374.

29) 蒙恩錄(181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p. 317-318.

30) 廣東陳氏族譜. 2002, 서울: 學文社 닷컴, p. 12.

31) 蒙恩錄(181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 318.

의 지명에 대해 廣東陳氏族譜는 “세상골”이라 하지만³²⁾ 廣東陳氏派譜와 大明遺民史는 “鳥翔山下”라고 기록하고 있다.³³⁾ 최초 제사가 이루어진 연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廣東陳氏派譜는 1672년,³⁴⁾ 안내판과 蒙恩錄은 1679년,³⁵⁾ 大明遺民史는 1680년이라 설명한다.³⁶⁾ 더불어 陳碩文이 부친인 陳永濤를 여의었던 당시 나이에 대해서는 廣東陳氏族譜내에서도 차이가 있어 앞 지면에서는 12세라 언급하지만, 뒤 지면에서는 14세라 한다.³⁷⁾

본 연구에서 이 모든 차이의 시비를 가릴 여유는 없지만 몇 가지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 우선 황조별묘 안내문은 “陳永濤(1644-?)”라 표기하고 있는데, 안내문의 이러한 표기 형식은 흔히 해당 인물의 생몰연대를 의미하는바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典故大方(1924)은 “제독의 후손이 동래한 이후 후손이 없다”고 하는데,³⁸⁾ 현재 광동진씨의 존재가 확인될 뿐 아니라 이를 역사적 존재를 증명할 여러 기록이 있어 착오가 분명하다. 황조별묘의 건축연도에 대해 상량문은 “同治十年歲次辛未年” 즉 1871년에 건축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蒙恩錄의 1879년 또한 분명한 오류이다. 끝으로 廣東陳氏族譜에 언급된 “세상골”이란 지명은 기타 관련 문건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란 용어 자체가 당시에는 지리

32) 廣東陳氏族譜. 2002, 서울: 學文社 닷검, p. 16.

33)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 376.

34) “顯廟壬子始健都督公祀宇以奉香火子孫世居焉”, 廣東陳氏派譜. 1906.

35) “泳濤之子碩權允權自龜石里移居海南仍名所居村曰皇朝洞立都督祀設位香之時在崇禎紀元後己未暮春上浣也子孫至今綿綿其在”, 蒙恩錄(181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 318.

36)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 376.

37) 陳碩文의 분묘를 설명하는 속지에서는 12세인데, 16페이지에서는 14세로 설명하고 있다. 廣東陳氏族譜. 2002, 서울: 學文社 닷검.

38) 典故大方(1924). 1982, 서울: 明文堂, p. 440.

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여, 이는 1906년 廣東陳氏派譜의 “鳥翔山下”가 한국어 지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새상골”이 아닌 “세상골”로 잘못 표현되었을 것이라 이해된다.

다음은 황조별묘 고유제의 초기 형식 및 이와 연결된 황조별묘의 건축 연대이다. 디지털해남문화대전, 황조별묘 안내판, 大明遺民史는 모두 壇에서 시작된 제사가 1871년 건립된 황조별묘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³⁹⁾ 하지만 廣東陳氏族譜, 蒙恩錄 등 자료는 陳碩文(혹은 碩權·允權)이 황조마을 정착과 함께 都督公祠宇(혹은 都督祠)를 세워 陳璘에 대한 제사를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추론과 정리를 시도한다.

조상숭배를 위한 사당 건립은 후손의 정서적 욕구와 경제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와 이를 위한 사당 건립은 당시 중국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이며 보편적인 욕구였다. 특히 고향을 떠나온 해외 중국인은 현지 정착과 함께 바로 그들의 무덤이나 사당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화교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었다.⁴¹⁾ 陳碩文은 監國守衛使였던 陳永濤의 아들일 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陳璘의 증손이었던바,⁴²⁾ 이는 사당 건립에 대한 그의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설명한다. 한편 廣東陳氏族譜와 大明遺民史는 陳碩文이 20여 년간 가세를 확장하여 皇朝라 명명한 마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자손교육을 위해 大明齊라는 서

39) “英靈奉安掃地設壇令春清明日設祭”,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 376.

40) 蒙恩錄(181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 318.

41) 郑莉. 2016, “明清时期海外移民的庙宇网络”, 學術月刊 48卷, p.47.

42) 宣祖實錄은 陳璘의 행적에 대해 70여 차례 언급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jsessionid=2904E3F9F98CC1EA09EE65845B144633>(검색일: 2024.6.5).

당을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³⁾ 이러한 陳碩文의 가문에 대한 각별한 자부심과 경제력에 근거해볼 때, 陳碩文이 야외노지에 설치한 壇에서 증조부인 陳璘의 제사를 모셨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廣東 陳氏派譜, 蒙恩錄, 大明遺民史가 언급한 바와 같이 황조별묘가 1672년(혹은 1679년, 1680년) 만들어진 都督公祠宇(혹은 都督祠)에서 시작되어 1871년에 중창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조종암 대통묘 제향과 비교하여 황조별묘 고유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이다. 위에 열거한 각 기록은 황조별묘 제향의 지속성에 대해서 예외 없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蒙恩錄(1819)은 “都督祠를 세워 신위를 모셔 제사를 모신 때가 崇禎紀元後己未暮春上浣이며, 지금까지 자손이 면면히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⁴⁴⁾ 이는 1679년 음력 3월 초부터 陳璘의 후손이 都督祠에서 陳璘에 대한 제사를 모셨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이 최소한 1819년까지 都督祠 주변에 모여살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황조별묘의 역사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865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만동묘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과 관련 사당이 잇달아 철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조별묘는 1871년 중창되었고,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1906년에는 廣東陳氏派譜가 편찬되어 황조별묘 고유제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비롯한 혼란의 시기에도 황조별묘 고유제는 언제나 한식에 맞추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고 광동진씨 노인회 회장은 증언하고 있다.⁴⁵⁾ 1981년 明代遺民 후예들이 조직한 明義會에

43) “자립의 힘을 얻어 34세 때 조상산 아래 집을 짓고 솔과 잣을 심어 마을을 이루었다. 이에 명나라 유민이 산다는 뜻으로 그 마을을 황조동이라 하였다.”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 서울: 保景文化社, p. 374.

44) “立都督祀設位享之時 在崇禎紀元後己未暮春上浣也 子孫至今綿綿其在”, 蒙恩錄(1819),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 318.

45) 2024년 2월 21일 황조마을 마을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광동진씨 陳相鎬가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1989년 발간된 大明遺民史의 편집위원으로 역시 광동진씨 陳奉植이 활동하면서 광동진씨 및 황조별묘의 존재는 황조마을을 뛰어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⁴⁶⁾ 1982년 3월 9일자 동아일보에 “海南에 明나라 장군 後孫-壬亂때 水軍제독 陳璘의 손자 定着”이라는 다음의 기사를 게재되었다.

“明나라 수군제독 陳璘장군의 후손들이 全南 海南지방에 살고 있다면 놀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廣東陳氏 70여 가구로 이뤄진 마을주민들이 바로 陳제독의 후예들이다. …, 전국적으로 250가구가 있고 서울에 50가구가량 살고 있는데 皇朝里엔 일체의 다른 성씨가 없이 陳씨마을을 이루고 있다.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 제일 높은 곳엔 낡긴 했어도 陳璘제독의 별묘(別廟)를 모셔놓고 있었다. …, 매년 淸明(4월5일)때면 전국에서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이 마을 최고 원로 陳甲振翁(79)은 말했다. 이 같은 제사와 마을 원로들의 구전 탓인지 이 마을의 아이들은 국민학생만 돼도 자신이 陳제독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자랑스레 생각한다.”⁴⁷⁾

황조별묘는 역사는 1993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광동진씨의 뿌리인 중국 廣東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2월 한국 광동진씨 종친회가 중국 廣東省 翁源县을 방문하여 시조 陳璘의 묘지와 사당에 참배하였고, 1996년 5월에는 翁源县 대표가 황조마을에 초청되어 황조별묘를 참배하였다. 이후 황조별묘에는 한국에 부임한 중국대사 및 영사를 비롯하여 중국 진씨의 참배가 이어졌다. 2024년 4월 5일, 황조별묘 고유제는 어김없이 모셔졌다. 1672년 음력 3월 초 시작된 제사가 3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연속되고 있음이다.

46)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下, 서울: 保景文化社, p. 551.

47) “海南에 明나라 장군 後孫-壬亂때 水軍제독 陳璘의 손자 定着”(1982.3.9), 동아일보

IV. 황조별묘 고유제의 동력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황조마을의 광동진씨는 하나같이 가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2024년 2월 21일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황조마을의 원로인 陳順泰는 다음과 같이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우리 가문의 시조는 陳璘 장군님이시다. 어르신들이 양반 행세를 많이 했다. 우리 마을은 班村이었고, 아랫마을은 民村이었다. 우리는 名門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에 때론 주변 마을을 무시하기도 했다. 어지간한 성씨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했다. ..., 황조별묘 제사는 빠짐이 없었다. 6.25때도 모셔졌다. 祭主는 3일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정성으로 음식을 장만했다. 굉장히 엄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황조별묘 고유제가 350년간 유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보단, 만동묘뿐 아니라 九義士 가문의 조종암 대통묘 제향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환경을 감안하면, 광동진씨의 자부심만으로 황조별묘 고유제의 역사적 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의문에 대해 최중성의 연구는 참고할 만하다. 그는 조상의례에 대해 “(흡향과 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적 도구”라는 해석과 “인간 사고를 상징화한 표현 자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능적 효과를 위한 고정성과 형식성을 전자의 특징으로, 그리고 상징적 효과를 위한 상황성과 변동성을 후자의 특징으로 강조하였다.⁴⁸⁾ 특히 그는 상징화의 범주아래 제사와 정치의 특수한 관계를 논하였는데, 이는 일본 신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군국주의의 뿌리를 살핀 이찬수의 연구, 만동묘과 대보단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임부연의 연구 등과 그 논지를 공유한다.⁴⁹⁾

48) 최중성. 2021, “조상에 대한 의례학적 쟁점-기복, 윤리, 구제”, 종교연구 81집 2호, pp. 134-135.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인간 사고를 상징화한 표현 자체”라는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서 정치와의 특수 관계아래 표현되는 상황성과 변동성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준다. 1831년부터 시작된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明의 大統을 잇는다는 신념을 표현코자 明 太祖 및 그의 상징적 충신들인 九義士를 모신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는 특정 씨족의 제사라기보다는 정치이념의 상징적 표현이었다.⁵⁰⁾ 특히 제사의 대상에 神宗과 毅宗을 배제시킴으로써 표현되었던 九義士 후손의 정치이념은 이 두 황제에 대해 “再造之恩”의 지극한 마음을 품고 있던 조선 왕실 및 유림의 정서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설령 九義士 후손의 정치이념이 시공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들 내부의 공고한 구심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토대가 전제되어야 했다. 하지만 19세기 초의 조선은 이들이 내걸었던 大統의 신념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고,⁵¹⁾ 내부의 구심력이나 경제적 토대 또한 부실하여 지역 유림의 지원이 없으면 “결국 없어질 것이 분명”한 것이었다. 이에 1958년 재개된 조종암 대통묘 제향의 성격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神宗과 毅宗의 신위와 함께 朝鮮의 文武十賢(훗날 九賢)이 추가 배향되었고,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사 날짜까지 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사의 주도권마저 九義士 후손이 아닌 지방 정부와 유림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성과 변동성은 조종암 대통묘 제향

49) 이찬수. 2013. “제사의 정치학: 일본 국가신도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비평화 구조”, 통일과 평화 5집 1호; 임부연. 2009, “유교의례화의 정치학-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권.

50) “대보단의 향사는 그 상징과 활용의 주도권을 두고 정치세력의 각축이 벌어졌던 핵심적 사안이었다”, 김호. 2003, “英祖의 大報壇증수와 明三皇의 享社”, 한국문화 32권, p. 213.

51) “1681년 난이 진압된 이후부터 남명왕조의 실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우경섭. 2013,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권, p.139.

이 이미 제사라기보다는 전통제례의 형식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행사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제사의 대상, 주체, 시기 등에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350년의 지속성을 가진 황조별묘 고유제는 당초부터 광동진씨 후손이 그 조상인 陳璘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흠향과 음복의 목적을 가진 전형적인 씨족 제사의 형식을 갖는다. 물론 廣東陳氏派譜 또한 여타 明代遺民의 가문과 마찬가지로 中華의 회복을 기원한다는 정치이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大統, 行廟, 行祠 등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조종암 대통묘의 九義士 후손과는 달리 광동진씨는 스스로를 중국 진씨의 大譜에서 파생한 별개의 派譜라 정의하면서 한국정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⁵²⁾ 광동진씨가 사용한 여러 연호의 사용 또한 흥미롭다. 예로 1871년 증창된 황조별묘의 상량문은 同治연호를, 1906년 편찬된 廣東陳氏派譜는 崇禎연호를, 그리고 황조별묘 고유제 축문(2023)은 별다른 연호가 없이 癸酉年, 즉 干支연도를 쓰고 있다. 여타의 명대유민 가문이 淸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明의 永曆 혹은 崇禎연호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여기에는 연호사용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淸의 同治연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광동진씨 및 황조별묘에게 있어 연호가 특정 이념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황조별묘 고유제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소는 지리적 폐쇄성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 끝이다. 여기에 더해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마을은 1980년대 시작한 간척사업으로 지금은 그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남쪽을 제외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끝에서 또 끝이라 할 만한 지역이었다. 그 언덕에 서쪽을 향한 황조별묘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에 역시 서쪽을 향한

52) “廣東陳氏派譜重刊序”, 廣東陳氏派譜. 1906.

광동진씨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1672년 陳碩文이 해남 산이면에 황조 마을을 일구면서 언덕위에 건설한 황조별묘는 지금까지 광동진씨 가문의 상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조별묘의 지리적 특수성은 조종암 대통묘와 확연히 비교된다. 조종암은 서울 중심에서 46Km에 떨어져 있어 그 왕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관련 문건은 九義士 후손들이 조종암에 정착하여 제사를 모셨다고 하지만, 典故大方(1924)은 九義士 후손의 거주지로 서울을 비롯한 가평, 강릉, 양주, 풍덕(개성), 단양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散在性和 流動性을 일정수준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황조별묘 고유제의 지속성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소로써 광동진씨의 독립적인 경제역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기록은 12세(혹은 14세)에 혼자 몸이 된 陳碩文이 20여 년간 가세를 확장하여 황조마을을 일구면서 陳璘祀宇와 大明齋를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⁵³⁾ 황조마을의 지리적 특수성 및 “지금까지 자손이 면면히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蒙恩錄의 기록에 근거하면, 17세기 말 陳碩文이 일궈내었던 이 경제적 기반이 외부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전히 황조별묘 근처는 모두 광동진씨 종친의 땅이라는 황조마을 대표 陳判奎의 증언이 이 추론에 힘을 더한다. 한편 광동진씨 종친회가 제공한 광동진씨문중 일정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유제를 비롯한 각종 문중 행사에 소요된 각 항목의 비용을 나열하고 있다. 황조별묘고유제, 시제, 문중총회, 중국 관련 기관과의 교류, 임진왜란 관련 행사 참석 등 항목의 모든 지출 가운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은 “황조별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해남군청이 해남향교를 통해 매년 관내 17개 서원과 사당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55만원이 유일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문중 자체에서 마련한 비용이다.⁵⁴⁾

53) 廣東陳氏族譜. 2002, 서울: 學文社 닷컴, p.16.

54) 2023년까지 해남군청이 50만원, 해남향교가 그 10%인 5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V. 결론

본문은 광동진씨의 황조별묘 고유제를 주제로 삼은 최초의 학술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해 관련 족보를 비롯하여 건물 상량문, 지도, 연관 사료 등을 적극 활용하였고, 그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등 사회학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원시자료가 발굴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임과 동시에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터이다.

한국의 광동진씨는 17세기 조선에 망명한 明代遺民 가문의 하나로서 이민과 정착의 역사적 과정 및 그 기억에 대한 집단적 공유를 통해 씨족 내부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계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정체성의 대표적 상징물인 황조별묘 고유제는 1672년부터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유구한 역사성을 가능케 한 것은 정치이념을 배제시킨 씨족 제사라는 성격, 지리적 폐쇄성,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마련된 경제적 기초였다. 황조별묘 고유제는 조상을 위한 흠향과 후손을 위한 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전형적인 조상의례였지만, 이는 완전히 씨족 내부의 정서적 유대감과 경제력에 의해 지탱되었다. 여기에 더해 해남 황조마을의 지리적 폐쇄성과 350년간 황조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황조별묘의 상징성은 광동진씨 내부의 정서적 유대감뿐만 아니라 황조별묘 고유제가 자체의 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기본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에 비해 조종암 대통묘 제향은 황조별묘 고유제와 같은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九義士 후손의 최종 지향점은 조선에서의 정착이 아닌 “중국”으로의 귀환이었기에 이들은 조종암 주변에 집성촌을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내

부터 총액 7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24년 5월 8일 유선으로 해남향교 사무국장과 인터뷰하였다.

부의 단합이나 경제적 기초도 부실했다. 결국 조종암 대통묘 제향의 형식 및 취지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최근 30년의 시대변화는 광동진씨 및 황조별묘 고유제에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일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아래,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派譜였던 광동진씨는 드디어 중국의 大譜와 연결되었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陳氏宗親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 大譜에 속하는 진씨 인구를 7천 만이라 소개한다.⁵⁵⁾ 이들은 모두 한국 광동진씨의 종친으로서, 황조별묘 고유제는 이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간다. 중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진씨 사우는 18세기 이후 건설된 것으로서 그 역사가 황조별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꾸준히 제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우는 황조별묘가 유일하다. 여기에 더해 황조별묘가 모시고 있는 陳璘은 고대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는 황조별묘 고유제가 기왕의 정치단위나 경제단위의 한중교류와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혈연관계에 근거한 씨족단위의 한중연대를 촉발시킬 현실적 매개체로써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투고일: 2024.06.08. 심사완료일: 2024.07.01. 게재확정일: 2024.07.08.

55) 陈氏宗亲官网. 2024. “陳氏宗祠.” <https://www.jiapuweb.com/html/csgwa/index.html>
(검색일: 2024.6.5).

| 참고문헌 |

사료

書經 禹貢篇.

論語 爲政篇.

荀子 宥坐篇.

宣祖實錄, 仁祖實錄, 英祖實錄.

重菴先生文集 卷之五十二, 朝宗巖三賢傳.

毅庵先生文集 卷之三 詩, 崇明三義.

연구서

典故大方(1924). 1982, 서울: 明文堂.

廣東陳氏派譜. 1906.

朝宗巖保存會. 1982, 朝宗巖文獻錄, 서울: 景文社.

朝宗巖保存會. 1987, 朝宗巖文獻錄後集, 서울: 保景文化社.

明義會 編. 1989, 大明遺民史 上下, 서울: 保景文化社.

廣東陳氏族譜. 2002, 서울: 學文社 닷컴.

연구논문

유요문. 2023, “九義士傳’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법과 그 의미”, 고전과해석 40집.

김서민. 2022, “명유민의 제사활동 연구-조종암대통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영섭. 1995, “衛正斥邪의 象徵物 朝宗巖”, 泰東古典研究 11輯.

최중성. 2021, “조상에 대한 의례학적 쟁점-기복, 윤리, 구제”, 종교연구 81집 2호.

이찬수. 2013. “제사의 정치학: 일본 국가신도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비평화 구조”, 통일과 평화 5집 1호.

임부연. 2009, “유교의례화의 정치학-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권.

- 김호. 2003, “英祖의 大報壇증수와 明三皇의 享社”, 한국문화 32권.
우경섭. 2013,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권.
郑莉. 2016, “明清时期海外移民的庙宇网络”, 學術月刊 48卷.
余景燮. 2018, “朝鮮朝后期济南王氏家族的皇朝遗民意识”, 东疆学刊 35卷.

언론 기사

- “중국쪽 바라보고 선 집들, 수백 년 전 떠난 고향 생각 품었나”(2014.9.19), 경향신문.
“海南에 명나라 장군 後孫-壬亂 때 水軍제독 陳璘의 손자 定着”(1982.3.9), 동아일보.
“해남 집성촌서 400년 거주… 진린 명예회복이 가문의 꿈”(2014.7.13), 중앙일보.

인터넷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만동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56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대보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4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조종암 대통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612>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24. “許格.”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6JOc_A9999_1_0019384
- 디지털가평문화대전. 2024. “승명배청의 상징을 간직한 조종암과 대통묘.”
<https://www.grandculture.net/gapyeong/toc/GC07901623>
- 경기역사문화유산원. 2024. “조종암.” <https://gjicp.ggcf.kr/mediaObjects/35>
- 가평문화원. 2016. “조종암대통묘제향 의식 개최.”
http://www.gpc.or.kr/bbs/board.php?bo_table=saup1_5&wr_id=2
- 陈氏宗亲官网. 2024. “陳氏宗祠”
<https://www.jiapuweb.com/html/csgwa/index.html>